

통일 칼럼

김일성 정책 공개 비판

북한이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인 9차 노동당 대회를 이달 하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년을 승리의 여정이라고 자평한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에서 핵 전력 강화를 위한 새 구상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 대회를 앞두고 김 위원장은 민생 현장 시찰을 이어가며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는 데 열심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역화했던 선대 지도자, 할아버지 김일성의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이 건군절이라고 부르는 북한군 창건 78주년을 기념해 김 위원장이 국방성을 방문했다. 축하 연설에선 러시아 과병 부대에 격려를 표하는 한편, 9차 당대회에서 새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년 건군절에는 한국을 제1적대국으로 지칭했고, 지난해에는 미국이 한반도 격돌 구도의 근본 원인이라고 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 성과 현장을 찾아 자신의 치적을 선전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복규
논설위원

다. 사실 전반기에 깔끔하게 정돈된 평안북도의 한 축산농장 안으로 들어서자 열소들이 풀을 뜯고 젓소들은 자동화된 설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팔을 크게 휘두르며 현장을 지휘하는가 하면, 어린 소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도 지어 보였다. 각종 치즈가 진열돼 있는 유제품 생산 공장에선 간이 시식회를 방불케 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시종일관 만족감을 드러내던 김 위원장은 돌연 과거 이야기를 소환했다. '사회주의 농촌체제' 투쟁을 반세기 이상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주의 농촌체제'는 할아버지 김일성이 1960년대 제시한 농촌 건설 지침인데, 그간 성역화 했던 선대 지도자의 정책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북한 매체는 최근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정책에 따라 전국 곳곳에 완공된 공장과 병원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경제 발전의 실패를 자인했던 8차 당대회 때와 달리 이번 당대회에선 지방발전을 핵심 성과로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절차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의 폭을 넓히고 있는 김 위

원장이 자신만의 고유 통치 이념인 '김정주의'를 정식으로 공표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 제38노스는 9차 당대회 등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조부 김일성이 사용했던 '주석' 직함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정은이 주석에 오를 경우 북한 내 정책 결정 구조와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그 구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9차 당대회를 2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둔의 지도자' 이미지답게 집권기간 단 한 차례도 당대회를 열지 않았던 김정일과 달리, 김 위원장은 2016년 36년 만에 당대회를 부활시킨 이후 5년 주기를 정착시켜 나가는 모습이다.

사설

균형발전 불가론 경계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 '특·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과 고용균 제주부지사는 지난 8일 콘라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 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의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대한민국 균형 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국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모든 지역은 선후나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

여야 한다. 특히 '원주·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 실현의 일계절을 돌파할 전략적 승부수'이다.

참석자들은 광역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원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데 공정한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같은 국도균형발전 전략의 가장 큰 이해충돌 영역을 선물 주듯이 주는 건 문제다.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연간 5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 또 최근 중앙부처의 타 시도 이전 거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흔들 수 없는 위험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

'당신과 마주하는 나의 마음' 기획전

전주 교동미술관 기획전 '당신과 마주하는 나의 마음'은 이 2월 22일까지 분관 1·2전시실에서 열렸다.

김용봉, 김치현, 박남재, 이복수, 장영, 홍순무 등 6명의 작고 작가와 강대운, 강정진, 김경희, 김두해, 김선태, 김화근, 박단용, 박천복, 신세자, 유대수, 유휴열, 이흥규, 정라기, 홍선기의 작품 등 총 22점을 선보였다.

김용봉(1912~1996)은 전주 인근 풍경을 현장에서 직접 그려내며 1930년대 인상주의적 경취와 한국 근대 양화의 흐름과 있는 성과를 남겼다.

김치현(1950~2009)은 예술적 열원을 응축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 다. 박남재(1929~2020)는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오지호를 만나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자연을 중심으로 대담한 화면 구성과 깊이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이복수(1922~2004)는 정제된 색채와 절제된 서정성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장영(1937~2014)은 전북의 사계 풍경과 꽃, 정물 등을 재현했다.

홍순무(1935~2023)는 다양한 소재와 기법 실험을 통해 사물놀이와 같은 전통 소재로 삶의 유희를 예찬한다. 강대운(1933~)은 평면적 표현과 색채의 공간감을 구현했다.

강정진(1955~)은 거친 붓질과 대담한 색채로 특정 지역의 풍경과 정서를 회화적 언어로 담았다.

김두해(1954~)는 소나무의 굳건한 기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힘찬 희망과 생명력을 시각화했다. 유휴열(1949~)은 인간과 자연, 전통과 현대의 관계를 탐구한다.

사내·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독자제언

명절 끝난 지금, 다시하는 안전 점검

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이 시기는 생활의 빈틈을 노린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새해를 맞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명절 기간 집을 비운 가정을 노린 빈집 절도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동안 장기간 집을 비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귀가 후 문단속 상태와 주변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현관문과 창문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택배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SNS에 여행 일정이나 집이 비어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행동은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

다음으로 새해 초에는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 공공기

관을 사칭한 불법 대리구매, 저급리 대출, 카드 발급, 택배 오류 등을 빙자한 문자나 전화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제공 및 계좌이체 요구는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금은방을 노린 절도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귀금속은 현금화가 쉬워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 많다. 상가 및 점포에서는 CCTV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출입문 보안 강화, 야간 시간대 순찰 강화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시민들 또한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의심 상황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하는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오경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한 줄기 빛 속에서 코란 읽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지난 19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사메드 알하시미 사민에서 이슬람 성원 리마단을 맞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코란을 낭독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